

중앙일보



♪ 나는 에쓰-오일 ♪
좋은 기름이니까~!
S-Oil

단기 4340년 (음력 1월 6일)

joins.com

제13099호 43판 2007년 2월 23일 금요일

중앙일보 제13099호 40판

과 학

한·일 해저터널 '불씨' 되살아나나

국회서 연구 세미나 열려 240km 세계 최장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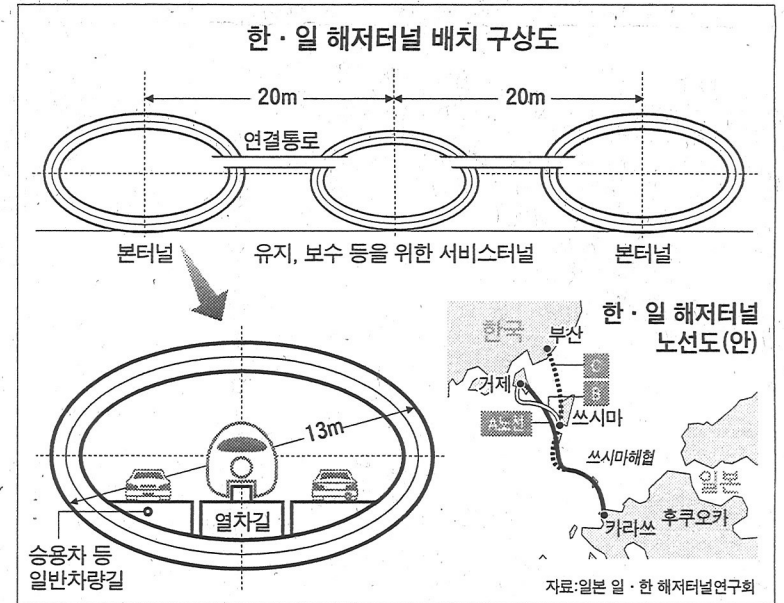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 1980년대부터 말만 무성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놓고 한국과 일본에서 불씨 살리기가 한창이다. 21일 국회의 원회관에서는 양형일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일 해저터널연구원이 주관한 '한·일 해저터널 연구개발 세미나'가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구상의 장단점, 세계적인 해저

터널의 현황 등이 소개됐다. 지난해에는 이를 한국에서 연구할 단체로 한·일 해저터널연구원이 사단법인으로 발족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정부에서 법무대신을 지낸 노자와 다이조가 일·한 터널연구회장을 맡아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하다. 신장철 송실대 일본 어학과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한국이 동북아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건설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또는 거제도)과 일본 남부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일본 측이 구상한 전체 건설 구간은 200~240km로 건설되면 세계에서 가장 길다. 여기에 시속 700km의 초전도 자기부상열차를 달리게 하면 한·일 간을 1시간 이내 거리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터널을 건설하면 '일본에만 좋은 일 시킨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금씩 일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가 얼마만큼 여론 형성에 기여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2007年2月23日

中央日報

日韓海底トンネルの「火種」起こし

国会で研究セミナー開催、240km世界最長の構想

日韓海底トンネル構想が実現するか？1980年代から言葉だけが飛び交ってきた日韓海底トンネル構想の火種起こしが韓国と日本で盛んだ。

21日、国会議員会館ではヤン・ヒョンギル議員室が主催し、社団法人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が主管する「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開発セミナー」が開かれた。そこでは日韓海底トンネル構想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世界的な海底トンネルの現状などが紹介された。昨年それを韓国で研究する団体として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が社団法人として発足した。また日本では小泉政権時に法務大臣を務めた野沢太三が日韓トンネル研究会長となり力を傾けている。シン・ジャン Chol（申章澈）崇實大学日本学科教授は、「日韓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韓国が東北アジア地域の共同体形成の中心的国家に浮上する」とし、「積極的に建設に必要な基礎調査を急がねばならない時期」と語った。

日韓海底トンネルは釜山（または巨済島）と日本の南部を海底トンネルで結ぶものだ。日本側が構想する全体建設区間は200～240kmで、建設されれば世界でもっとも長い。ここに時速700kmの超伝導磁気浮上列車を走らせれば日韓間を1時間以内に短縮できる。

しかし今でも、このトンネルを建設すると日本にだけが良い思いをする、という反対論が少なくない。したがって徐々に浮上する日韓海底トンネルの論議がどれほど世論形成に寄与す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のが実情だ。

パク・パンジュ 科学専門記者